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 속 사물을 통한 내면의
회화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양 재 윤

일상 속 사물을 통한 내면의
회화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양 재 윤


인 준 서

양재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권기범 

심사위원 이만수 

심사위원 노신경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업 속 주된 주제인 일상에 대한 탐구로 시작한다. 일상 속 사물을 통한 내면회화 연구를 주제로, 2021년 ‘흘러가는 마음들’이라는 석사 학위 청구 전시에서 전시한 작품과 2018-2019년의 대학원 작업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작업의 시작은 떠나가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떤 풍경인가에 대해 상상하며 그려내기 시작했는데, 일상에서 채집한 다양한 오브제들과 풍경, 식물을 조합해 하나의 풍경을 만들었고, 현재 채집하는 것 중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물과 식물이다. 일상 속 평범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평범하지만은 않은 풍경 속 오브제들에서 느끼는 감정을 넣어 일상에서 숨겨진 우울, 외로움, 슬픔, 무감정의 상태 등 각각의 작업에 다양한 내면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평범한 일상 속 발견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장면들에 미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연구자는 평범한 일상 속 발견하는 다양한 오브제와 장면들, 반복되는 나날 속에 생기는 미묘한 감정들을 탐구한다. 의미를 담은 사물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며 사물에 담아 작업한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채집물을 하나로 모아 이야기가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큰 주제를 가진 사물은 단독으로 그려내 디테일 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일상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 일상과 사물의 의미, 드러내지 못하는 숨겨진 감정에 대해 탐구해본다.

연구자는 일상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며, 숨겨진 마음 속 감정들을 채집한 사물들로 풀어낸다. 일상 속 잊었던 감정들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바라보며 현대인들이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일상의 장면을 통한 회화	3
1) 일상과 회화	3
2) 사물의 재구성	6
2. 작품분석	7
1) 일상과 감정	7
2) 사물의 의미	22
I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untitled, 162.1×112.1cm, 한지에 채색, 2016	9
【작품2】 여정의 끝에서 보게 되는 장면, 108.0×108.0cm, 한지에 채색, 2017	11
【작품3】 고요한 장면, 76.5×117.0cm, 한지에 채색, 2018	11
【작품4】 작은 관계들, 61.0×101.5cm, 한지에 채색, 2019	13
【작품5】 작은 마음의 기록, 97.0×130.3cm, 한지에 채색, 2019	14
【작품6】 추념의 공간, 93.0×93.0cm, 한지에 채색, 2019	14
【작품7】 어떤 기억들, 130.3×162.1cm, 한지에 채색, 2021	17
【작품8】 흘러가는, 108.0×108.0cm, 한지에 채색, 2021	19
【작품9】 일상채집 I, 90.0×25.0cm, 한지에 채색, 2021	20
【작품10】 일상채집 II, 90.9×90.9cm, 한지에 채색, 2021	20
【작품11】 우리들, 60.6×72.7cm, 한지에 채색, 2021	22
【작품12】 어떤 기억들, 162.1×97.0cm, 한지에 채색, 2021	24
【작품13】 마음의 모양 drawing, 22.0×25.5cm, 한지에 채색, 2019	25
【작품14】 마음의 모양 drawing, 22.0×25.5cm, 한지에 채색, 2019	25
【작품15】 마음의 모양 drawing, 22.0×25.5cm, 한지에 채색, 2019	25
【작품16】 마음의 모양 drawing, 22.0×25.5cm, 한지에 채색, 2019	25

도 판 목 차

- [도판1] 프랑켄, 〈쿤스트카머 컬렉션〉, 74×78cm, 나무에 유채, 1636년 이후, 빈 미술사 박물관 4
- [도판2]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침병〉, 242.5×243.9 cm, 캔버스에 아크릴릭, 1967 4

I. 서 론

현대인에게 일상이란,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면서도 떠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일상 속에서 채집한 다양한 오브제와 풍경을 바탕으로, 기억을 재구성 하여 내면의 마음을 담은 회화를 그려내고 있다.

논문은 ‘일상 속 사물을 통한 내면 회화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선택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업 속 주된 주제인 일상에 대한 탐구로 시작한다. 평범한 일상 속 발견되는 다양한 오브제와 장면들, 반복되는 나날 속 생기는 미묘한 감정들을 탐구한다.

일상 속 사물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채집에서 시작된다. 길가 틈새의 작은 들풀이나, 버려진 물건들 같은 소소한 것들에 먼저 눈길이 가곤 한다. 일상을 지내며 생기는 다양한 사건들 속 느끼는 감정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며 가곤 한다.

그렇게 감정을 안고 사물들을 바라보았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사물들을 발견하곤 한다. 떨어진 나뭇가지들이나 버려진 인형, 아스팔트 틈새에서 겨우 피어난 들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울감이나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발견한 사물들은 사진을 찍어두거나, 드로잉 해두고 그 사물들을 보며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들을 조합하여 개연성이 없던 각각의 사물들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풍경으로 재탄생 시킨다.

작업의 첫 시작은 여정 시리즈이다. 다양한 이유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떤 풍경인가에 대해 상상하며 시작한 작업으로, 일상에서 채집한 다양한 오브제들과 풍경, 식물을 조합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표현한다.

이후 마음의 공간, 모양 시리즈에서 현재 채집하는 것 중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물과 식물을 그려낸다.

일상 속 평범한 풍경 같으면서도, 평범하지만은 않은 오브제들에서 느끼는 감정을 넣어 일상에서 숨겨진 우울, 외로움, 슬픔, 무감정의 상태 등 각각의 작업에 다양한 내면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다.

석사학위 청구전 제목 ‘흘러가는 마음들’은 연구자의 작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일상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마음들을 채집한 사물이나 무의식중에 결합된 풍경으로 표현해 흘러가듯 잃어버리는 감정들을 재구성된 일상풍경으로 탄생시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작업하고 있다.

1장에서 일상의 장면을 통한 회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일상’의 시작에 대해 고찰하며 현대와 과거의 일상회화를 비교해보고, 연구자의 작품 속 사물의 채집의 시작에 대해 고찰해본다.

2장에서 연구자의 작품을 소개하며, 작품의 형성배경과 작품의 변화과정, 사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회화의 일상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총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작업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일상의 장면을 통한 회화

1) 일상과 회화

일상(日常)이란 늘, 매일, 항상 반복되는 나날을 의미한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요즘 세대에게 일상이란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다. 반복되는 나날 속 현대인들은 각자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르므로 공동체에서와 실제의 '나'는 다를 수 있다.

연구자 또한 일상 속에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 조금은 특별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그것을 회화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상의 '나'는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숨기며 지내게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에 대입하게 된다. 그 사물들에 감정을 더해 어떤 풍경으로 만들게 되고, 내면을 표현하게 된다.

일상성은 현대인들에게 평범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놓칠까봐 전전공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

각자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 각자의 개인이 숨기고 있는 진짜 나 자신을 일상에서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숨겨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1995, p.13



[도판1] 프랑켄, <쿤스트카머 컬렉션>, 74×78cm, 나무에 유채, 1636년 이후

[도판2]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침빙>, 242.5×243.9 cm, 캔버스에 아크릴릭, 1967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기억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은 그런 일상을 예술로 반영하여 표현하게 된다.

과거의 예술은 일상적인 것을 표현하기보다 공간과 사물, 종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실물로 가져올 수 없는 먼 곳의 풍경이나 성경상의 사건들을 수집 가능하게 해주는 용도로 쓰였다.²⁾ 프랑켄의 그림 <쿤스트카머 컬렉션>을 보면, 실제 모아놓기 힘든 것들을 모아 하나로 그려내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며, 큰 사건이나 상징이 있는 회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은, 현실의 삶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아지며 관념과 정보위주의 회화에서 변화하게 된다.

회화는 시간을 멈추게 한다. 회화에서 공간은 평면적으로 변한다. 회화를 그린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 모두의 주관적인 심리적 반응과 지식이

2)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아트북스, 2009, p.171

그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³⁾

이렇게 예술의 방향이 예술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많아지게 되면서, 더 다양한, 평범한 일상의 이미지를 회화와 연결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은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지만, 모두의 일상은 다르게 흘러간다. 무료하게 느껴지던, 그저 흘러가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때,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된다.

일상은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난 후로는 일상에서의 느낌과 보고 경험한 세세한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되었다.

3) 마틴 게이퍼트 『다시, 그림이다』, 디자인하우스, 2018 p.8

2) 사물의 재구성

장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물들은 사진으로 기록되거나 드로잉을 통해서 채집하게 된다. 연구자의 채집은 일상속의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일상 속에서 발견된 사물과 장면들을 채집하는데, 매일 다니는 길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물들과 식물들, 없었는데 우연히 생기는 것들, 또는 다른 곳에서 본 인상적인 장면들도 포함된다.

주로 많은 채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식물들과 가구들이다. 식물들은 작은 들풀들부터 큰 나무까지 다양하게 채집된다. 계절을 담은 식물들과 일상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식물들을 시간 순서대로 변화를 관찰하고, 채집한다.

식물들은 장면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배치된다. 일상적인 풍경을 담았으나,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물들을 재구성한 내면을 담아낸 회화이기 때문에 그림에 담은 감정이나, 상황표현을 할 때 채집한 식물 중 작업하고 있는 회화 속 이야기와 가장 어울리는 식물들을 넣어 표현한다.

가구는 주로 버려진 것들이나 오래된 골동품들로 채집하게 된다. 일상 속 거리를 걷다보면, 버려진 가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버려지고 오래된 가구들에게는 어떤 세월과 시간이 있고, 그 시간들을 상상하면 그 가구에 무엇을 담아내게 될지 알 수 있다. 낡고 고장나 버려진 사물들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상상하며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작업하려고 한다.

또한 무의식(unconsciousness)적으로 기억되는 것도 있다. 무의식이란, 의식속 의식되지 않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의식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⁴⁾ 드로잉 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한 것 외에도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나 사물들이 꿈에서 깬 뒤에도 계속 잔상으로 남게 되면, 회화 속에 함께 그리게 된다.

4) 지그문트 프로이트, 우리글발전소 역, 『정신분석 입문』, 오늘의책, 2015

2. 작품분석

1) 일상과 감정

현실이 아닌 어디론가 떠나게 된다면 그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일들에서 도피하고 싶은 때가 있다.

작업의 시작은 과거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미술수업 봉사를 했던 것으로 시작된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수업에서 아이들의 병이 악화되어 떠나보내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의 변화를 느꼈다. 정서적으로 교감하던, 꽤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범하고 무료한, 그저 흘러가는 일상.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

이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떠나 지내는 곳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그 곳’으로 지칭하고 표현하게 된다.

‘그 곳’은 다양한 마음과 감정을 모은 곳이기도 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공간 일 수도 있다. 현실에서 위안이 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자연 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작품에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 표현하게 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는 사물은 나무와 돌, 인형, 물이다. 잎이 없는 나뭇가지들을 모아놓으면 뾰족한 창처럼 느껴져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나무들을 쌓아 다른 더미나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나무는 살아 있는 생물이지만,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빗대어 많이 그리게 된다. 시소의 형태로 균형을 잡거나 매달아 놓거나, 자라나는 나무들을 잘린 나

못가지들과 함께 배치해 양가적⁵⁾인 감정을 연출한다.

흰 돌 또한 자주 등장하는 사물 중 하나다. 돌은 예로부터 신성히 여겨지곤 했다. 돌을 가득 쌓아 무덤을 만들기도 했고, 돌과 관련된 설화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자연에서 생겨난 어떤 것 보다 단단한 물질이기도 하다. 이스트 섬의 모아이 석상처럼 있는 것만으로도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고, 돌 위에 돌을 올리고,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거나 추모의 의미를 담아 기도하는 모습들에 영감을 받았다.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돌은 무더기로 가득 쌓여 무언가 숨겨두고 있거나 조각상의 형태로 나타낸다. 군데군데 돌 밑에 무언가 살짝 보이게 설정해 두거나 무더기처럼 쌓아 숨기는 다양한 마음들을 표현한다.

인형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로 쓰인다. 특히 인형은 길가에서 버려진 채 자주 목격되기도 해서 어떤 이유로 버려진 건지 상상하다보면 그 인형에게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인형은 작품에 담긴 감정에 대한 작은 설명으로 쓰이는데, 힘없이 늘어져 있거나,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사람의 형태보다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순화해 표현할 수 있어 작업 속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물은 흐르기도 하고, 고이기도 한다. 일상에서도 물은 웅덩이나 호수, 강, 바다와 같은 자연의 형태거나, 분수처럼 인공적인 다양한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두운 분위기의 감정을 나타내곤 한다. 잔잔한 강을 바라보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 고요한 분위기 속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고여 있는 물의 형태는 점점 어두워지는 내면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표현되는 물인 분수에서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의 표현이 가능하다.

5)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감정과 태도, 경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작품1】 untitled, 162.1×112.1cm, 한지에 채색, 2016

초기의 작업인 【작품1】을 보면, 숲 속에 드문드문 앉거나 누워 있거나 들판에 둘러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저 어떠한 공동체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구성원들처럼 보인다.

넓게 펼쳐진 자연 속에서 같은 차림새의 같은 크기의 사람들을 배치해 사실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탄생된다. ‘전치(轉置)’로 번역되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⁶⁾ 기법이 만드는 개연성 없는 사물들의 ‘느닷없는 개입과 만남’으로 가득하다.

일상에서 아이들을 기릴 수 있는 물품들, 학교 책상이나 책, 들을 자연 속과 결합해 표현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떠나간 곳에서 더 행복하게 이루고 있기를 바라며 작업했다.

6) ‘추방하는 것’이란 뜻. 초현실주의에서 쓰이는 말로,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함.

나무들과 그 사이에 듬성듬성 쌓인 돌무더기와 강 위에 놓인 징검다리, 그리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들,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의자들이나 사다리 등, 작품 곳곳에 일상에서 채집한 오브제들을 배치해 현실과는 다른, 기묘한 풍경으로 만들어진다.

【작품1】 속에서는 숲 속에 드문드문 앉거나 누워 있거나 들판에 둘러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가 그저 어떤 공동체 속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유토피아⁷⁾의 구성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나타내려 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작업한 작품인데, 이 시기 처음으로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되고, 나보다 어린데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일상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평화로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일상적인 공간처럼 보이지 않도록 실제적인 배경보다는 단색으로 표현하고, 떠나간 이들의 공간을 오히려 밝게 표현하여 현실보다 더 평화로운 공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작업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책걸상과 책장들을 함께 배치해 ‘그 곳’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를 바라며 작업했다. 또 넓게 펼쳐진 자연 속에서 같은 차림새의 같은 크기의 사람들을 배치해 평범한, 현실과 다를 바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7)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理想鄉)을 가리키는 말.



【작품2】 여정의 끝에서 보게 되는 장면, 108.0×108.0cm, 한지에 채색, 2017



【작품3】 고요한 장면, 76.5×117.0cm, 한지에 채색, 2018

【작품2】 부터는 작품에 사람을 넣지 않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넣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연출되기도 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의미를 중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간에 직접적으로 인물을 넣지 않기 시작했다.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전체적으로 작은 사물들을 큰 화면에 배치하고, 차분한 색감을 위주로 연구자가 생각하는 여정의 끝에 펼쳐진 공간을 표현했다. 작품의 가장자리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그렸는데, 마치 만화의 한 컷처럼, 혹은 액자처럼 표현했다. 이는 결국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연구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라는 사실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이라는 슬픈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했다.

이후 【작품3】 부터 지금의 작품과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게 되었다. 전의 작품들에서는 주로 추모의 감정으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더 다양한 감정들로 확장해 나타내려 했다.

【작품3】 에는 감정을 중심으로 사물을 채집하고 풍경을 전개한 것이 보여지는데,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작품속에 표현된다.

이 작품에서는 슬픔, 우울, 외로움 등을 사물에 빚대어 표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감이 밀려오곤 하는데,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면 어떤 공간에 남겨질까 생각해보다 만들어진 풍경이다. 우울, 슬픔과 같은 감정을 가득 쌓인 뾰족한 나뭇가지, 옷장 안에 숨겨진 돌, 꼬인 줄들과 묶여진 사물들, 붕 떠있는 호수 등으로 표현하고, 전체적으로 낮은 채도의 색감으로 표현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4】 작은 관계들, 61.0×101.5cm, 한지에 채색, 2019

연구자가 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수이다. 분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일상 속 우연히 발견했을 때, 생경한 기분을 가져다준다. 계절의 아름다움은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온다. 연구자는 식물들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느낀다. 【작품4】는 여름무렵의 채집물을 주제로, 연구자의 작품 중 긍정적인 감정을 모으려고 시도한 작품이다. 여름은 덥지만, 식물들이 풍성하게 초록으로 자라며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아름다웠던 여름, 그 속에서 발견했던 분수와 들꽃들을 바라보며 계절의 아름다움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작품5】 작은 마음의 기록, 97.0×130.3cm, 한지에 채색, 2019



【작품6】 추념의 공간, 93.0×93.0cm, 한지에 채색, 2019

분수를 사용해 일상의 감정을 담아 긍정적인 방향의 감정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장마철에 열린 채로 버려져 서랍이 물로 가득 차 나뭇잎이 떠있는 서랍장은 마치 호수같이 느껴졌다.

버려졌지만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더 원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거진 풀숲과 주변에 놓인 사물들의 관계를 조합하여 일상에서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물의 어우러짐, 여름에 느낀 평화와 아름다움, 그 계절을 표현하려고 했다.

【작품5】을 관찰하면 채집했던 시기와 그 계절에 느꼈던 감정을 알 수 있다. 가을 무렵 색색의 들꽃들과 노랗게 물들던 나무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파여진 구덩이와 홀로 서있는 바위섬.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보는 행복과 안정됨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물과 식물풍경을 은은한 색감 속에 배치했다.

이 시기의 본인은 아마도 가장 행복했을 때였던 것 같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안정된 관계들과 작업의 즐거움, 아름다운 장면들을 가족들과 보러 다니며 많은 채집을 진행했다.

주로 불안함과 우울, 고민의 감정들을 넣어 표현하려고 했던 회화에서 점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고민했던 작품이다.

작품 속엔 연구자의 내면심리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데,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모두 보여주기보다 관람자들이 작품을 관람하며 자신의 어떤 감정과 닮아 있는지 확인하며 감상하기를 바란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속에서 다양한 내면의 마음이 담긴 회화를 만들어 낸다.

【작품6】은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시도했다. 이 시기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대학원 수료를 앞두고, 앞으로의 학생이 아닌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생각이 너무 많아 정리되지 않고 부유하는 기분이었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

기도 했다.

그래서 특히 이 작품에서 불안한 우리들, 청년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작은 투명수조안에 홀로 갇힌 금붕어와 그 옆에서 타오르는 불꽃, 숨은 것 같지만 뻗어 보이는 인형, 곧 쓰러질 듯 언덕에 세워진 의자, 여기저기 묶여진 끈들과 구석의 테이블에 숨어있는 소녀까지.

이 시기의 본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포화된 상태였다. 이를 불안감이 느껴지는 사물에 대입하여 내면의 마음을 담은 회화를 구상했다.

언뜻 색깔만 보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묘하고 이질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 주로 호분을 섞어 파스텔 톤의 밝은 색채로 작업을 하는데, 오히려 이 작품에서의 타오르는 불꽃은 붉은 색으로만 표현해 전체적으로 담담한 색채와 대비되어 더 잘 보이게 표현했다.

‘데페이즈망(dépaysement)’기법이 제일 잘 나타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7】 어떤 기억들, 130.3×162.1cm, 한지에 채색, 2021

COVID-19⁸⁾의 대유행으로 침체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피로와 우울감이 높았던 시기가 있다. 갑자기 찾아온 큰 변화에 바뀌어 버린 일상을 적응하는 것도,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먼 곳을 돌아다니며 장면과 사물을 다양하게 수집했다. 갑자기 닥친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어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를 버틸 수 있었다.

8)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코로나로 인해 빈 시간에 본가에 자주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를 자주 산책하며 다양한 사물을 채집할 수 있었고, 이때 느낀 가족에 대한 감정을 【작품7】에 담았다.

가족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따스한 감정과 존경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림의 중심에는 가족들과 함께 했던 여행에서 본 크고 뽕족한 나무를 배치했다. 이리저리 자유롭게 뻗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는 꼭 가족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되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빠의 낚시배와 엄마의 원예도구들, 평화로운 감정이 느껴지는 봄의 꽃나무와 식물들을 배치해 작업했다.



【작품8】 흘러가는, 108.0×108.0cm, 한지에 채색, 2021

【작품8】은 현재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작품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그대로인 것 같은 본인의 마음에 대해 고민하며 작업한 그림이다. 제목은 〈흘러가는〉이지만, 작품 속엔 고여 있는 물을 중심에 배치했다.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전 제목인 ‘흘러가는 마음들’ 또한 이와 같은 의미이다.

아무렇지 않은 척 흘러보내는 듯 하지만, 결국은 고여 있는 어두운 감정들을 풀어내고자 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쓰러진 채로 물에 잠겨가는 화분과 물속에서 큰듯하지만 말라가는 풀들, 텅 빈 책장, 물 앞에 설치되어있는 장난감 바리케이트, 사슴모형 등 인공적인 것들을 넣어 고요한 분위기 속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



【작품9】 일상채집 I, 90.0×25.0cm, 한지에 채색, 2021



【작품10】 일상채집 II, 90.9×90.9cm, 한지에 채색, 2021

【작품9】, 【작품10】은 일상에서 채집된 장면들이다.

작업실과 집근처를 다니며 눈에 띄는 것들을 관찰하고 드로잉 후 조합했다. 문을 닫은 꽃집의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식물들과,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에 활짝 피어있던 화분을 가져와 더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했다. 손이 많이 간 꽃도 아름답지만, 손길이 닿지 않아 정갈하지 않은 잡초와 함께 있는 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곤 한다.

【작품9】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오브제들을 그림으로 가져와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보이는 사물들과 식물들은 집 근처에 오래전부터 있던 꽃집 앞의 사물들이다. 이곳은 동네의 작은 꽃집인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낡은 모습이다. 근처의 다른 건물들은 새로 만들거나, 변화하고 있는데 이 꽃집만큼은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다. 오히려 그 곳은 그곳만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다. 무언가를 꾸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처럼 나만의 방식을 잔잔히 지켜나가는 것을 닮고 싶었다.

이곳의 밖에 늘 나와 있는 오브제들을 그림으로 옮겨와 배치하고, 작업실의 이젤을 그려 평범한 일상 같지만 다른 공간을 만들었다.

【작품10】은 커다란 철문이 눈에 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늘 보는 철문인데, 늘 쇠사슬로 감긴 자물쇠로 잠겨 있어 호기심을 자아냈다. 완전히 벽으로 만들어 그릴수도 있지만, 딱 철문만 가져와 배치함으로써 ‘데페이즈망(dépaysement)’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작품들에서는 비어보이면 무의식적으로 관련 없는 사물들로 화면을 채우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의미를 담은 사물들 위주로 보여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빈 부분은 과감히 두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물에 집중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사물의 의미



【작품11】 우리들, 60.6×72.7cm, 한지에 채색, 2021

사물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지니는 성질과의 관계 혹은 그것을 형성하는 물질과의 관계로 <이것> 으로서 지시된다. 이에 따르면 사물은 무규정 적이고 추상적인 '사물 자체'라고 규정된다. 사물은 분석에 의해 상호 외재적으로 구별되고 다양한 내용으로서 나타나는 존재이다.

사물은 그저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버려진 사물들이나 오래된 것들을 보면 이 사물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어떤 사물을 발견했을 때, 유난히 눈에 밟힐 때가 있다. 천천히 관찰하며 사물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하며 채집하고, 관련된 이야기와 감정들

을 그릴 때 어우러지게 조합하곤 한다.

보통 작업을 전개할 때는 채집한 여러 사물들로 풍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채집한 하나의 사물에서 느낀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해보고 싶었다. 작은 화판에 하나 둘 그리기 시작해 큰 화판으로 옮겨가 하나의 주제로 삼을만한 채집물을 추려내 원래 그리고 있는 작품과 어우러지게 작업하고 있다.

【작품11】은 시골의 초등학교에 있는 동상을 그린 것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작업인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되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시절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를 그려 완성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사물은 주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주는 중요한 것이다. 전체적인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에서 보여주는 사물의 수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어보이는 화면을 의식적으로 가득 채우려하기 보다 내면적인 풍경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물 위주로 구성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작가의 심리상태와 내면풍경을 더 이해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작품12】 어떤 기억들, 162.1×97.0cm, 한지에 채색, 2021

【작품12】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로 시작되어 영감을 받았던 사물들을 하나씩 나열해 완성한 작품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혼자서는 지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결국은 또 다른 관계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오브제들을 함께 배치하여 그림을 완성했다.

차례대로 하나씩 나열된 오브제들은 담담한 색채로 표현하여 하나가 크게 눈에 띄지 않도록 채색해 모두 하나의 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색감의 강조보다는 특별하지 않은 무언가를 차례차례 읽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다.

녹아버린 생일초와 들풀과 꽃, 【작품11】에 출현했던 동상을 다른 구도로 작업에 넣어 그 시기마다 느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다.



【작품13-16】 마음의 모양 drawing, 한지에 채색, 2019

꽃과 들꽃은 연구자의 작품 속 많이 등장하는 오브제 중 하나이다.
자연은 끝이 없다. 주위 깊게 살피면 알아챌 수 있는 자연의 무한함⁹⁾에 인간의 감정을 빚대기도 한다.

연구자의 작품 속 식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 긍정적이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오브제 중 하나이다. 꽃을 그리는 것의 시작은 말라가며 결국 버려지는 꽃들에 마음을 담은 기록드로잉이었지만, 이제 꽃들에 다양한 의미들을 탐구하며 작업하고 있다.

꽃은 축하를 받을 때도 쓰이지만, 추모할 때도 쓰인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길러지기도 하며, 어디에선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씨가 뿌려져 스스로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 생존하기도 한다. 만개 했을 때는 색색의 화려함을 뽐내지만, 시들면 빛을 잃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에 일상에서 꽃과 식물을 발견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작품13-16】처럼, <마음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드로잉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선물 받았던 꽃들을 말려놓거나, 길에서 발견한 풀꽃들을 채집해 드로잉 한다.

꽃들이 말라가며 서서히 바뀌는 과정 속 형태와 색감을 비교하고 기록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 마틴 게이퍼트 『다시, 그림이다』, 디자인하우스, 2018 p.32

Ⅲ . 결 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일상 속 사물들을 채집 후 채집물의 관계를 연결하여 만들어낸 내면회화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인은 일상에서 발견한 다양한 사물과 채집물을 담담한 색채로 표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채집의 이유와 표현에 대해 고찰해보고, 작품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초기 작품에서는 사물들을 조합해 일상에서 떠나 마치 유토피아처럼 새로운 곳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 추모와 위로의 감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제의 폭이 좁았다면, 이후의 작품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한 채집물들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느낀 어떤 상황의 표현이나 내면의 숨겨진 마음을 표현하는 작업으로 발전되었다.

작업은 더 다양한 감정이나 일상의 의미를 담은 오브제들을 하나씩 표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일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작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소재중 하나이다.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다고 느꼈던 일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영감을 얻는 과정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하다.

앞으로의 작업 진행은 조금 더 의미를 담은 채집물들에 집중하여 하나를 집중적으로 작업해 볼 예정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채집물을 하나로 모아 이야기가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오브제 하나를 발견했을 당시 느낀 감정과 상황도 표현하고 싶었다. 작은 크기의 작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크고 디테일 하게 표현하려고 한다.

다양하게 수집된 채집물을 마치 정물화처럼 하나, 혹은 같은 의미를 담은 사물을 두세개 정도 놓여져 있게 그린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들을 모아 아카이빙한 것처럼, 혹은 사물 그림들을 하나의 정물화처럼 배치하여 관람자들이 사물들(혹은 식물들)을 보고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작품의 확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영상으로 사물들로 구성된 내면 회화 속을 산책하는 시리즈를 기획해 마음을 표현한 회화가 더 가까운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작업해보려고 한다.

연구자는 앞으로도 일상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며, 숨겨진 마음 속 감정들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 표현할 것이다. 일상 속 잊었던 감정들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바라보며 현대인들이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사전

서양미술사전, 미진사, 2015

단행본

이광래, 『미술 철학사3』, 미메시스, 2016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아트북스, 2009

마르틴 하이데거,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1992

마틴 게이퍼트, 주은정 역, 『다시, 그림이다』, 디자인하우스, 2018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1995

지그문트 프로이트, 우리글발전소 역, 『정신분석 입문』, 오늘의책, 2015

존 듀이, 박철홍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나남, 2016

학술자료

김범균, 「회화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 래, 「물의 생명성과 순환성을 통한 내면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최지연, 「오브제를 통한 일상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일상, 그 아름다운 이야기〉연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n painting the inner world through the Objects in Daily Life

- Focused on My Work -

JAERYUN YA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begins with the exploration of daily life, a main subject of researcher's work. With the topic of study on painting the inner world through objects in daily life, this paper is described based on works exhibited in the exhibition for master's degree titled 'minds passing by' in 2021 and works from graduate school from 2018 to 2019.

The work was drawn with the imagination on what kind of landscape will be there in the place where waygoing people reach. I created one landscape by combining various objects and plants collected in daily life and worked with objects and plants that were considered to have various meanings among many other collections. It looks like an ordinary landscape in the daily life, but I tried to express various inner minds to each work such as depression, loneliness, sadness and neutral affective state

that are hidden in daily life by adding emotions felt by objects in the landscape that are not just ordinary when looking them closely.

I sometimes feel subtle emotions from various objects and scenes discovered in ordinary daily life. The researcher explores various objects and scenes discovered in ordinary daily life and subtle emotions appeared in the repeated days. I think of the emotions I felt when discovering objects with meaning to put it on objects. I sometimes create the landscape that have a story by gathering meaningful collections into one or draw object with a major theme alone to express it in detail.

I explore the meaning of daily life and objects and hidden emotions that can't be revealed, starting with thoughts on daily life.

The researcher continue to consider the daily life to express emotions hidden in mind with collected objects. I want to keep my study to know whether emotions I have forgotten in my daily life can be discovered and modern people looking at it can be consoled and comforted from it.